

문화예술 교류 · 상호 발전 도모

무주최북미술관-전주부채문화관, 지역 문화발전 ·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최북미술관과 전주부채문화관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맞손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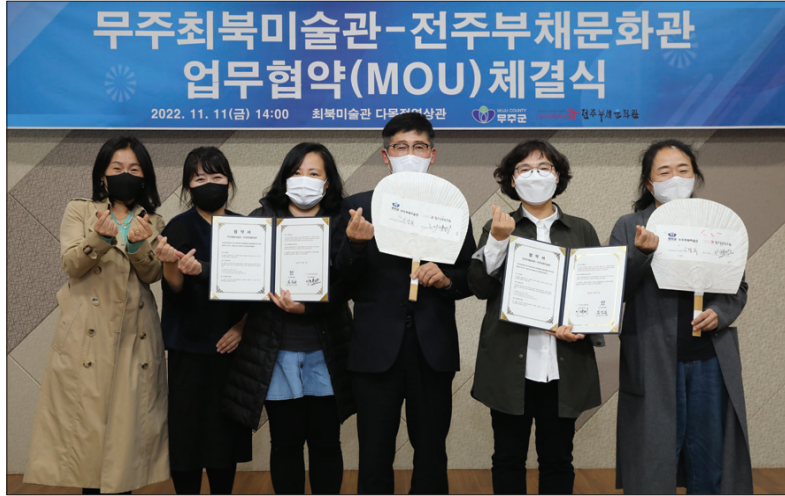
지난 11일 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과 전주부채문화관 이항미 관장이 무주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활성화 등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교류와 지역교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그리고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협력함은 물론 문화예술 업무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군시설사업소 김경복 소장은 "한옥마을 소재지인 부채문화관과 함께 협업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와 함께 기관 간 상호 협력적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로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최북미술관과 전주부채문화관은 교류 전시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기로 해 무주지역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기대된다.

지난 2011년 10월 개관한 전주부채문화관은 60여점의 부채 유물을 소장한 상설 · 기획 전시



무주최북미술관과 전주부채문화관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맞손을 잡았다.

실과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전주 부채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부채 장인들의 예술혼을

재조명하는 곳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대 학생들, 코리아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 수상

산업디자인학과 오시은 · 조예나 학생 우수상 등 총 13명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오시은(4학년) 학생과 조예나(3학년) 학생이 2022 코리아텍스타일어워드(KTDA)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시은 학생은 'Your own color'라는 테마로 무채색과 같은 삭막한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칼라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새와 곤충 등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디자인하였으며, 조예나 학생은 '밤의 향기'를 주제로 서정적인 꽃과 야행성 동물들을 모티프로 밤의 서늘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표현한 인터리어용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 군산대는 △우수상-오시은, 조예나 학생을 포함해 △특선-김지민(3학년), 권다솔(2학년), △입선-김보나, 노연우, 정솔(3학년), 김여진, 김연우, 김윤지, 유서인, 이승준, 최문규(2학년) 등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코리아텍스타일디자인어워드(KTDA) 대회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섬유패션분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열리는 대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한국섬유신문과 사단법인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가 주관하는 2022 KTDA 시상식은 11월 4



오시은 학생 수상작

조예나 학생 수상작

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렸으며, 제10회 분상 수상 작품은 의류, 스카프, 침구류 등으로 상품화하여, 2023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KTDA부스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군산=김관곤 기자

한식창의센터,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대상 전통음식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11일 한식창의센터 조리체험실인 '시루방'에서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과인 쌀강정을 만들어 보는 '오감 만족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북대학교병원, 푸른전주와 함

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반경이 좁아진 어르신들에게 일상을 회복하고 무기력한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덕진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 60여 명이 시루방에서 미리 준비된 쌀 튀밥을 흑설탕과 조청으로 버무리고 모양을 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장은성 기자

“관광객 1000만 시대 만들어가겠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중선 상임이사 취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안중선 상임이사가 취임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그간 비상임 수석이사 조직체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상근직의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상임이사를 채용했다.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다.

신임 안중선 상임이사는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플랫폼 기능과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새로운 상임이사와 함께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도시”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안중선 상임이사는 고창군 교수면 두평리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해, 육군학사장과 중위를 전역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으며, 기타 연주자로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거리 홍보를 전개했다.

‘익산에서 세계를 즐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 개관 1주년 기념 거리 홍보 전개

익산글로벌문화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거리 홍보를 전개했다.

글로벌문화관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 각국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익산에서 세계를 즐기자’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익산글로벌문화관이 각국의 불거리, 배울 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렸다.

또한 한 해 동안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찾아주시는 어린이집, 초 · 중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68개소에 1주년 기념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조남우 익산글로벌문화관장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사회가 되도록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도내 최초로 세워진 세계문화 전시 · 체험 공간으로 다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 전시 관람은 물론 전통의상체험, 악기체험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 ·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익산 글로벌문화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global.iksan.go.kr>) 또는 전화(063-859-549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